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하기

거니시는 하나님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창3:8). 여기서 사용된 ‘거니시다’는 히브리어 단어 ‘할락’입니다. 기본적으로 ‘견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 문학 용법 중에 무언가를 강조하거나 심화시킬 때 사용되는 어간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걷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우 집중해서 걸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락’이 사용된 구절들에서 이 단어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레26:12)에서 ‘행하여’라고 번역된 단어가 ‘할락’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의미를 “나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걸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신23:14). 이때 ‘행하심이라’도 ‘할락’입니다. 적이 있을 때 내 옆에 서주시는 하나님을 ‘할락’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삼하7:6)에서 ‘다녔나니’도 ‘할락’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동행하시는, 어디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니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선전한 날에 산책 나오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한 단어에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를 구원하셨고, 그와 동행하셨다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니셨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의 거니심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쫓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이면 하나님도 움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우면 시온 산에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니심’이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는 거니심,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대적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어딜 가든지 함께 걸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의 감격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



✍ 텍스트와 콘텍스트

보호·공급·인도하심을 품은 기도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시편 16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 제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세 가지로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하고, 나를 가장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호하심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1절). 히브리어 원문은 더 명확하게 이 의미를 전달합니다. “나를 지켜 주소서, 하나님! 왜냐하면 내가 주께로 피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 주실 의무가 있으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스스로 피난처를 만들기도 하고, 도망칠 곳을 찾기도 하면서 모면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고대 종주 계약에서 높은 자와 낮은 자 사이에 언약을 맺으면 낮은 자가 언약할 때 높은 자는 무조건 보호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로 피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2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을 ‘주님’(히브리어로 ‘아도나이’)이라고 부르며 모든 필요한 복이 그 주인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종이 환난을 당할 때 주인에게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귀한 자들로 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시 16:1-11)

백하고, 그들 안에서 삶의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3절).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영적 싸움은 결코 혼자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옆에 항상 ‘존귀한’,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옆에 붙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 옆에 세우신 믿음의 동역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제목을 가르치는 시편

언약관계에 의거해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인되심을 고백하고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겨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유산처럼 주셔서 누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

공급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한 다음에 시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5-6절).

본문을 보면 ‘나의 산업’, ‘나의 잔의 소득’, ‘나의 분깃’, ‘줄로 재어 준 구역’, ‘나의 기업’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현들이 공통으로 나타내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遺産)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그분께서 나에게 유산처럼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몫을 딱딱 떼어준 것처럼 나의 가정, 직장, 사업체 등 누리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아름답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업을 바라보며 나의 인생에 좋은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첫 번째가 이렇게 가지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유산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혼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7절). 하나님께서 먹고사는 육체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인

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침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물질을 사랑하고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과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지 않으시고, 옆에 서서 동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8절). 우리는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쪽에서 동행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바른’ 쪽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뒤따르는 우리를 배려하셔서 앞이 아니라 옆에 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방식입니다.

인도하심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 땅에서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11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의 길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웃음이 납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나는 너무 힘든데, 내 마음속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됐다, 어찌냐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가 넘칩니다. 바로 이러한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고, 이 길 끝에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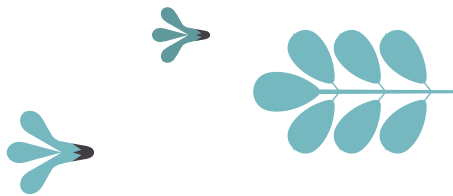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9절). 나의 마음이 참 기쁘고, 나의 영(원어는 ‘영광’), 나의 명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유산이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나의 마음이 항상 기쁘고, 주께서 주신 건강으로 육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까지도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맺음말

기도는 배우는 것입니다. 시편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공급하심을 어느 곳에서 놓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공급하심을 놓치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유산, 먹고살게 하신 것 안에서 감사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나의 길을 걸으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6편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드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장로임직후기

‘함께 그리고 나란히’ 섬김으로 세워가는 교회



작년 10월 15일(주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의 투표를 거쳐 당선된 피택임직자들의 임직식인 섬김영광의날이 4월 27일(토) 오후 3시에 본관 3층 예배실에서 있었습니다. 노회 임원과 열린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시무장로 3명, 안수집사 12명, 시무권사 28명, 명예권사 9명 등 총 52명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임직식을 통해 세워진 일꾼들이 건물을 이루는 벽돌처럼 어우러지고 연합하여 예수님께서 토대가 되신 성전을 ‘함께 그리고 나란히’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래에서는 장로님들의 소회를, 뒷면에서는 다른 직분자들의 소감을 전합니다. (가나다 순 배열이며, 시무권사님 일부와 명예권사님의 소감은 다음호에 이어집니다-편집부)



구용회
섬김영광의날을 맞이하여 장로로 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의 신앙간증을 통해 듣는 말씀은 한결같이 “저는 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제가 대상자가 되고 보니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면 저 개인으로나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였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장로의 일원으로 교회에 덕이 되고 믿음의 본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교회가 올곧은 길을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듣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장로가 되려 합니다. 담임목사님과 열린교회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섬길 것이며 더불어서 “나중 영광

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학2:9) 하신 말씀을소망하며 교회를 힘껏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



박희준
힘이 많고 부족한 저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다소 막연하게 알았던 장로의 역할과 자격에 대하여 피택임직자 교육을 비롯해 임직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많은 가르침과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유익하게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성도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장로, 교회 곳곳의 소리를 경청하며 공감하고 소통하는 장로, 담임목사님의 목회철학과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며 교회의 하나 됨을 지켜나가는 그런 겸손하고 지혜로운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의 남은 인생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섬김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여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이동훈
신앙의 방향을 마치고 열린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며 신앙생활한 지가 22년 정도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는데 이번에 장로 임직을 받게 되면서 많은 부담 속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피택임직자 교육을 통하여 교회 직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으로 주어지고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내용에 힘을 얻어 임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

추천도서

목상과 해석

정성국/성서유니온

적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목상하면서 ‘내가 혹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닐까?’ 되돌아보고, 나중에는 그것이 본문의 원래 의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때의 목상 전체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성국 교수는 이 연재를 통해 대중들의 큐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해석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런 해석과 목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릇된’ 해석 뒤에도 의미 있는 목상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찾아보면 우리 주변에 성경 해석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다루면서 해석과 목상의 이상을 제시하는 책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목상 중에 실제로 일어나는 해석 현상들을 설명하는 책은 드물다... 이 책은 목상의 방법보다 방향에 대해 씨름하게 만들고, 더 깊은 목상으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목상이 그저 머릿속 사고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도록 이끈다. 더 나아가 개인의 목상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해석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해 준다...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고 나의 삶을 읽어 내는 목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하는 목상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책이다. 이 초대에 응하는 독자들에게서 목상이 풍성해졌고 그 목상으로 인해 삶이 풍성해졌다는 고백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출판사 서평)



새가족

장년

- 강유리(95)
- 박진희(81)
- 박주영(52)
- 이현숙(55)
- 김길주(70)
- 신명숙(71)
- 유선오(45)
- 한선자(53)
- 강미경(72)
- 최유영(89)
- 정미영(68)
- 손우경(73)

청년

- 박성훈(99)
- 김윤수(86)
- 김지은(89)
- 명왕성(89)
- 양수빈(96)
- 전인서(05)
- 양해은(98)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주요사역



- 1일(토)~3일(월) 국내아웃리치
- 9일(주일) 교회학교 학부모세미나
- 9일(주일)~23일(주일) 청년부 결혼예비학교
- 11일(화)~12일(수) (상반기) 교역자보고회
- 14일(금)~15일(토) 당회수련회
- 23일(주일) 제직회
- 29일(토) 강단기도 헌신자모임

인생의 길에서
지혜를
만나다 (잠 4:1~9)

- 일시 6월 9일(주일) 오후 2시 10분
- 장소 예배실(본관1층)
-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 대상 교회학교 학부모
- 자녀돌봄 영아부실(별관1층)
- 문의 이지연 전도사



임직후기

〈안수집사〉



강병관

구역장이나 목양팀, 새신자반 섬김 등을 하며 이미 어느 정도 섬김에 대한 각오는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이나 자질로 보자면 많이 부족하지만 제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이끌어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택임직에 감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임직을 위한 교육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정식 임직을 받아서 보다 성실하게 섬겨야 하는데 직장도 별도로 뒤늦게 시작한 학업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며 어느 자리에서든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동웅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축하와 격려를 받은 것은 결혼식 이후 십수 년 만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임직식 이후에 평소 저를 아껴주시는 목사님께 소식을 전하였더니 짧은 카톡을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남기웅

귀한 부르심에,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선배와 동료로부터 받은 많은 사랑과 섬김을 기억하고 매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 소중한 하늘 가족인 교회를 잘 섬겨 나가길 원합니다.



성시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에게도 이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는 생각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피택임직자 교육에 임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자만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무를 맡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에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함께 진행된 주바라봄기도회를 통하여 세상의 가치를 예수의 가치로 바꾸는 제자가 되길 기도하며,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사는 하루 되길 바라며 예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기를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겸손과 기도로써 주어진 직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회사에서도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향기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교육 과정을 준비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헌신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신준영

열린교회 안수집사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겸손

하게 동행하겠습니다.



양석주

교회의 중직자로 섬길 수 있도록 부르시고 피택임직자 교육과정을 통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지혜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로써 교회의 연합과 질서를 위해 내가 섬기는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뜻을 잘 세워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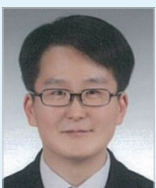
이승근

직분을 통해 주님을 가까이함으로 더욱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능력과 성과보다 인격과 성품으로 교회의 질서와 화목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신 마음 지켜 끝까지 믿음과 감사로 행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상연

열린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교회 내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서 충성스러운 신자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섬김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정원대

이제는 교회의 일감에서 일꾼으로,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피택임직자가 되어 교육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고 천한 저에게 영광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인 중에 죄수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연약한 지체들에게 흘러가는 직분자, 섬김에 겸손하며 지혜로운 직분자, 교회와 자체들에게 충성되며 사랑으로 섬기는 직분자가 되게 하소서!



최복진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저를 사랑하셔서 열린교회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듣게 하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열린교회 중직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했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고백하면서도 거룩함을 좇지 못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열린교회를 충성되어 섬기겠습니다.



허신구

우선 넘치도록 축하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직분 주심도 저의 부족한 믿음을 보시고 더 단련시키시려고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하셨습니다. 10주 동안 교육을 받으며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처럼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아도 되는 직분인가로 시작했던 마음에서 마지막

에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소명과 함께 은사도 같이 주시니 감사하게 순종함으로 섬기겠다고, 그때 다짐한 초심 잊지 않도록 마음 지키기에 힘쓰겠습니다.



홍석희

임직식은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섬김으로 더 나아가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였기에 큰 기쁨과 은혜와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시무권사〉



고은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두시고자 하는 곳에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서있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 살길 기도합니다.



김경희

임직 준비를 통해 주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공동체의 기도가 가장 마음에 납니다. 40일의 새벽기도의 여정과 교육과정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사랑이 세상의 연약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가정, 세상을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함이 저에겐 큰 영광스러운 일임을 오늘도 감사하게 됩니다.



김근화

권사 임직을 받게 된 것은 큰 책임이자 기쁜 영광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부르신 것은 주께서 힘 주시고 채워주셔서 사용하시리라는 뜻을 믿으며 순종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이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늘 먼저 기도하고 겸손히 서겠습니다.



김영희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미련하고 무능한 자가 감당치 못하나 기도하며, 섬기며, 또 충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끌어 주실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김이숙

사랑하는 열린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임직식을 통해 교회공동체적으로 더 잘 섬기라고 인증해 주셨는데, 두렵고 무거운 부담감이 앞서지만,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잇대어 참된 신자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며, 제가 섬기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작은 모퉁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교회 앞에 더 겸손히 섬기겠습니다.



김지영

부족한 것밖에 없는 제게 귀한 직분을 맡기심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길 힘쓰겠습니다.



김혜정

이렇게 좋은 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듯 저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에 흠뻑 빠져있었던 교육과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열린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머리 되신 예수님과 더욱 교제하라고 주어진 자리에 부족하더라도 마음과 힘을 다하여 나아가리라 다짐해 봅니다. 항상 부족하다 하며 뒤로 물러섰던 은혜와 섬김의 자리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달아 순종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어느 순간 또다시 미끄러져 있는 나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돌이켜 다시 이 시간을 기억해 회복하게 되길 믿고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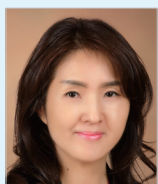
박보경

청년의 때에 열린교회에 등록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반백이 넘는 나이에 권사로 임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 누린 모든 영적 자원을 다음 세대를 위해 사용하라는 귀한 부르심으로 알고 교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기도로 돕는 자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박신영

아직도 '권사'라는 직분이 주는 부담감과 자격 없음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지만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성장시켜 주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 합니다. 존경하는 권사님 말씀이 생각합니다. "권사는 불러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 있는 것이다." 겸손함으로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기대지 말고 희망 없던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기억하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나의 자리를 지키리라 다짐해 봅니다.



박은정

권사라는 직분이 여전히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의 뜻에 따라 순종으로 한 걸음씩 따라가다 보면 직분에 좀더 합당한 날이 올 것이라 믿으며 예배의 감격이 삶의 감동으로 이어지는 건강하고 좋은 지체가 되겠습니다.



변승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로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나를 묵묵히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의 눈동자에 나의 모습을 늘 비추어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되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겠습니다.



빈명희

영광스러운 권사 임직 감사합니다. 아직 건강이 있는 오늘, 아직 기회가 있는 오늘, 아직 격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주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 순간 교회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은혜와 공동체의 귀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각양각색으로 반짝이는 지체들과 서로 어우러져 섬겨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셔서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고 배운 바 권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손순덕

흠 많고 온전치 못한 저에게도 귀한 직분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자격 없지만, 직분을 주셨을 때 감당할 힘과 능력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충성되게 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영광된 삶이 되도록 경건의 시간을 소중히 지키기를 원하며 그 힘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섬기며 맡겨진 영혼들에게는 받은 사랑으로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주님 사랑합니다.



안경록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처럼, 저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아름다운 열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안미자

주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만으로도 가슴 벅차고 감사한데, 아무 자격 없는 저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세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한없이 부족하고 흠 많은 자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피의 공로로 저를 구원하시고 몸소 섬겨주신 것처럼 저 또한 주님처럼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것을 다짐해 봅니다. 귀한 직분을 허락하심은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여기고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직분자로 무슨 일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나의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킬까?"를 고민하며, 그리스도를 닮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안연희

덜컹 겁이 날 정도로 무거운 이름으로 다가오는 직분이지만 그동안 인격적인 말씀을 통해 푸른 초장과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고, 모든 일에 앞서 행하셔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이셨기에 앞으로도 신실하게 감당할

만한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르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길 바라고, 저의 인격과 삶에 더욱 정결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 교회가 더욱 아름답고 든든히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양선희

"예수님의 성육신은 단순한 '육화(肉化)'가 아니라 '육이하화(肉以下化)'라고 말할 수 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 이하로 떨어지셨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인간처럼 되신 것' 정도가 아니라, '인간 이하로 되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가슴 저미며 아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유주화

민지 앓는 가정에서 자라 20대에 첫 회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의 이 귀한 직분을 받는 자리까지 있게 하신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피택임직자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마음 깊이 품게 하셨습니다. 이제 권사로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과 신실함으로 소망을 품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이은경

긴 여정의 마라톤 정 코스를 뛰지 못하고 겁내며 한발 한발 걸음을 떼는 초보자처럼, 다시 준비과정을 다지는 것처럼 임직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늘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 보혜사 성령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 연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명의 직분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긴 마라톤의 여정에서 묵묵히 달리고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여겨집니다. 권사 직분만큼이나 중요한 성도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이로서, 낮아진 자의 자세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이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위해 함께 울고 웃고 기도하며 공감해 주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주

즐겁기만 했던 엄마의 권사 임직 때와 달리 책임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진 임직입니다.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장미화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권사가 된 것이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로 섬기며 신실한 일꾼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교회에 흘러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태아부세미나 후기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태아부세미나



결혼하면 자녀를 갖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저희 부부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임신부만 보아도 눈물을 흘렸고, 제 친구들의 자녀들은 다 자라서 중학생들이 되도록 저희에게 기다리는 아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른하나에 결혼하여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되어 갑니다. 미국 교포인 남편과 결혼하여 남편 직장을 따라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간이 꽤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 검사를 진행했고 의사는 자궁내막증의 소견이 있으니 의학적으로 임신은 하는 것이 빠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험관 비용(회당 약 2,200만 원)은 너무 커서 저희 형편에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꼴로 한국에 겨우 나와 시험관 시술 1회 정도 받아볼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시술받는 것조차 어려워 그렇게 세월은 지나갔습니다. 30대 후반이 되어서 시험관 5차에 임신을 했으나 9주 차에 유산으로 아이를 보내고 코로나로 남편과는 떨어진 채 슬픔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유산의 아픔도 추스를 시간 없이 자궁내막증의 통증은 시험관 시술 자극으로 마약성 진통제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해졌고, 병변은 직장 등 다른 장기에까지 깊숙이 퍼져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신경 유착 후유증이 생겨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한동안 앉지도 못하고 울며불며 하나님께 고쳐 달라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행히 후유증은 나아졌으나 그동안 생긴 통증으

로 인한 트라우마가 생겨 다시는 시험관 시술을 원치 않아 40대가 되어서는 한국에서 입양을 알아봤으나 절차가 매우 까다로웠고 결국 자격이 충분치 않아 입양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더욱 상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40일 작정 기도도 해보며 대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여러 번 여쭙보았습니다. 10년 이상을 난임치료를 매달렸는데 지칠 대로 지쳤고 이제는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여 제발 자녀를 포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제 마음은 포기가 되지 않았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 기르는 일이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고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해져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녀는 수백억이 있다 해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며 은혜라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하게도 그간에 남편이 다시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으니 큰 용기를 내어 매달 적극적으로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였습니다. 마침내 시술 총 12번 만에 기적처럼 임신이 될 수 있었고 태아가 어느덧 23주가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태아부에서 주치한 난임 겪는 지체들을 위한 아이소망스쿨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었는데 이렇게 임신이 되어 태아부세미나를 참석할 수 있다니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다른 부부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한 집사님께서 해금으로 동요를 연주해주셨는데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양현정 장년3교구
muzian9@gmail.com



이후 목사님의 강의에서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따라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더없는 역할이라고 느꼈습니다. 자녀는 또한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기업이라는 말씀, 무엇보다 아이를 잘 키우려면 아이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새롭게 배웠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강의 이후 소그룹별로 태아부 집사님과 지체들과 이야기 시간이 있었는데 태교를 위해 말씀을 매일 암송하신다는 한 집사님의 말씀에도 많은 도전이 되었고, 이미 두 아이를 기르신 태아부 선배 집사님의 경험담에서 태교의 중요성도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기도하신 대로 아이가 태어났다는 경험담이 정말 신기해서 저도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으로 많이 기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귀하고 유익한 시간을 마련해 주시고 섬겨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가르쳐 주신 대로 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기까지 장장 12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지만 무수한 세월, 눈물의 기도와 아픔을 통해 저는 제 안의 많은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녀보다, 그 생명보다, 그 귀한 영혼보다 가치로운 것이 있을까 하는 마음을 깊이 새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분들과,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경주자(교역자칼럼)2

있게 하신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6월이 되면 농부들은 보리를 베고 모내기를 하는 등 농사일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24절기 중에 망종(芒種)이 찾아왔기 때문이지요. 양력으로 6월 6일경부터 하지 전까지 15일간을 말하는데요, 가장 바쁜 농번기이기도 하지만 이 무렵이 되면 비가 많이 내리고 사마귀나 반딧불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시기는 사실 그리 환영받는 날씨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때 비가 오는 곳은 날씨라고 해서 곡식의 종자를 뿌리지 않으면 수확의 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10여 년을 교회학교와 청년부를 함께 하고 사역지를 옮기기까지 제 안에 비를 맞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청년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된 교회였기에 교회를 향한 애절한 마음과 더불어 다른 사역의 경험이 없다는 것과 낯선 환경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신 분과 부르심을 놓칠 때 현실에 휘둘리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거듭 새로운 도전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함에도 내가 과연 다른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로 부르신 것이 맞는가 하는 목회에 대한 부르심까지 고민하

게 하였고, 염려하며 현실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두려움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 비가 오는 망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맞는 절기가 아니라 그저 ‘긋은 날’이 되고 맙니다. 그때 파종을 하고 모내기를 해야 하는 농부의 사명 또한 잊어버리고 맙니다. 긋은 날씨는 바깥에 나갈 수 없는 평계들을 만들어내고 보리를 수확하는 기쁨보다는 수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게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고민하고 움츠러들어 있다고 해서, 때에 맞는 비를 안 오게 하시거나 제가 해야 할 것들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잊지 않게 하고 오히려 본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옮기는 모든 과정에서 저희 가정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부르신 분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그렇게 오래도록 배우고 나뉘었지만, 사실을 현실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에 새기며 열린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린교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섬김의 파트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맡았던 부서와 같은 ‘고등부와 찬양’으로 정해진 것은 제 굳어진 마음을 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하람 고등부담무목사
anoointedhson@gmail.com



섬세한 손길이었습니다. 첫 마음을 확인시키시고, 있게 하신 자리에 서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금요일 시편기도회에서 교우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 고등부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사역을 의논하고 학생들을 심방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가 비를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이 아님을 따뜻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곡식을 알맞게 익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것은 날씨의 맑고 흐림이 아니라, 때에 맞는 파종과 수확입니다. 파종할 시기에 파종하지 않고 수확할 시기에 수확하지 않는 농부는 참 농부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그리스도인도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버거운 숙제 혹은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과 명예일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영광은 쉬이 잊히고 만다는 것을 이 여름에 다시 기억해 봅니다. 이 영광과 명예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누려가는 교우님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두려운 하루가 아닌 감사한 하루를 보냅니다. ☆

아빠Level Up2 후기

'내가 알아서 할게'에 대한 실망에서 응원으로!



공병석 장년3교구
dunk73@naver.com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춘기 아들의 뻔뻔함에 실망하여 아빠Level Up 2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5주간 주일 저녁 3시간 이상 교육에 참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참 쉬어야 할 주일 저녁 시간에 세미나실을 꽉 채운 아빠들의 마음에는 저와 같은 절박함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저는 자신 있게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유익한 경험을 같이할 친구 같은, 늘 자기 편에 서있어 믿어주는 사람 많은 아빠가 될 거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다 깬 것' 같은 지금은 방문 잠그고 은둔 생활하는 사춘기 아이의 허공에 잔소리하는 아빠가 되어있었습니다.

오주현 소장님(새롭심리상담센터)의 90분 순삭 강의를 통해 좋은 아빠가 되려면 배워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고충을 이미 겪으신 아빠로서의 경험담은 진솔했고 공감되었습니다. 조별 모임으로 흩어져 전문적인 최민영 권사님의 케어를 받으며, 배운 내용에 대한 각자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강) 십대 자녀 이해와 선택권 주기 의사소통: "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뇌의 회로가 빠르게 가지치기하는) 과정 속에 미성숙하고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구나! 자존감은 낮지만, 나보다 훨씬 미래를 고민하고 있구나! 지켜야 할 것 안에 선택권을 주어 책임감, 존중감이 생기도록 소통하자!"고 배웠고,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을 시도하였습니다.

2강) 자존감을 높이는 의사소통: "아이의 긍정적인 행동을 포착하여 격려하고, 자존감을 일으키도록 대화하는 법"을 배웠고, 공감 없이 충고했을 때 마음을 닫았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특히 처세술에 능한 우리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중요했기에 (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아이의 장점을 요일별로 적어서 매일 하나씩 격려하려 노력했습니다.

3강) 감정 코칭과 문제 해결 의사소통: 배운 것을 적용하

려고 대화를 늘려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주요 관심사를 포착하여 '대화 따라가기 → 감정 파악하기 → 느낀 감정 말해주기 → 스스로 해결하도록 질문하기' 순서대로 '무슨 고민 있니? 그래서? 응 그랬구나! 그럴 수 있어. 네 입장에서서는 그랬겠구나.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말처럼 쉽지 않았고 시간이 필요한 습관이었습니다.

4강) 훈육 의사소통: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화를 참되 최대한 단호하게 교육시켜야 한다!" 제일 어려우면서,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을 감사님도 인정하였습니다. 가정예배를 통해 지켜야 할 규칙을 좀 더 공식적으로 합의하는 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5강) 부(父)라보 아빠: "나는 아들에게 지금은 '돈 벌어주는 사람, 잔소리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나의 마지막 날에는 아이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회상할 수 있도록 웃어주고 믿어주고 사랑하자"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육의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좀 더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하게 되었고, 아이에게 '아빠가 내편'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자율권을 가이드하고 적절히 개입하여 선택의 길이 성공하는 경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결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아빠Level Up 교육의 내용은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고, 아이의 시간은 계속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나 같은 아들을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수없이 맹세했지만, 약속을 어기고 죄송해서 마음문을 닫는 은둔 생활, 한계 속에서 자유를 주셨지만 한계를 무시하고 자유를 펼쳤던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아이를 향한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를 응원하고 언제나 아들 편에 서있는 아빠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곰곰이 생각

내 인생의 목격자

-16년 전 어린이 회집 집회의 마지막 날 밤,
딸의 긴 기도를 기다린 후 돌아오는 길에서-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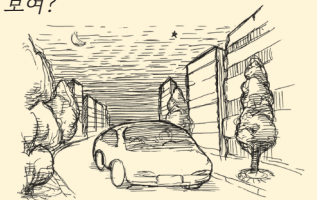
그날, 첫째가 하나님을 만났다.

- 아빠! 나 하나님 만난 거 같아!
- 왜 그런 생각이 들어?
- 응. 마음이 따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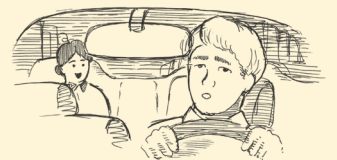
나는 증거를 찾았다.

- 너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보여?
- 응. 아파트랑 나무가
춤을 추는 거 같아!



나는 잊지 않길 바랐다.

- 너 오늘을 잊을 거 같니?
- 아니 절대 잊지 않을 거 같아.
-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잊을 수 있잖아?
- 음... 근데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오늘을 잊지 않으실 거 같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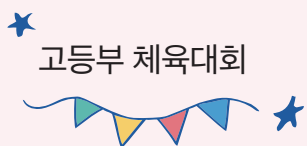
그날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뻐하며
밤잠을 설쳤다.

나는 알았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의 '당사자'이시기도 하지만,
언약의 '목격자'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런데 고백의 날만 목격하셨을까?
내 죄악된 날들도 목격하셨을 것 아닌가.

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영원한 목격자'이시다.



고등부 체육대회

지난 5월 12일(주일)에 고등부 체육대회가 성결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주일 10시 예배와 12시 예배로 분리하여 참석하던 학생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신체 기관 중 머리만 편중되게 사용하는 일상을 잠시 벗어나서 놀려있던 신체 모든 부분을 골고루 사용하며 건강한 맘을 흘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에 참석했던 고등부 선생님과 학생의 짧은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계절의 청춘에 삶의 청춘인 고등부가 함께했습니다. '열린 열띤 고등부'가 봄다운 봄을 맘껏 표현한 날, 아니 고등부가 봄꽃으로 피어난 날 같았습니다. 우리는 <운동해, 봄>을 표어로 성결대학교 실내체육관에 모였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중간고사를 마친 시기여서 그 동안의 학업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표출하였는데, 라떼(?)의 명랑 운동회 버전처럼 진행되었습니다. 2년 전에 1학년 학생들만 따로 학년 운동회를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전 학년 같이 하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살짝 상기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봄날 핀 벚꽃같이 사랑스럽고 어여쁜 우리 아이들을 보시며 우리 예수님도 기뻐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청춘의 봄다운 봄, '운동해 봄'을 또 기약해 봅니다.

(이영현, 교사)



더운 날씨에 선생님들께서 차로 픽업도 해주시고 학생들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게 보였어요. 활동 중에서도 이 어달리기, 머리 위로 공 올려서 전달하기, 줄다리기 가장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반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과 친해질 시간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체육대회 덕분에 다른 반 친구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수연, 고등부2학년)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였다. 부모님의 사업 실패로 집안이 기울면서 학업은 고사하고 먹고살 기초차 힘든 내게 신앙생활은 언감생심 사치였다. 지금은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사정에 아랑곳없이 같이 교회에 가서 놀자는 동네 친구들의 손에 끌려가서 덜컥(?)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내 신앙생활의 시초가 됐다.

하나님이 내 처지를 해결해 주실 거라 믿은 나는 중2의 질풍노도 같은 반항심도 버리고 교회에 나갔는데, 학생부에서 기도원에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울고불고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내 바람과 달리, 구한 대로 응답받았던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은 원망과 의심 그리고 풀리지 않는 여러 질문으로 늘 답답하 기만 했고, 나아지지 않는 형편 속에서 청소년기를 보내면서 현실에서 믿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자신밖에 없다는 생각 으로 차갑고 강박하게 변해갔다.

고군분투하면서 학군장교로 대기업에 선(先) 입사했던 나는 임관과 전역을 거쳐 20대 중반에 회사생활을 시작했다. 정말 열심히 세상을 쫓으면서 살았고, 곧 회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고 후배들과 의욕적으로 창업을 하는 등 멈춤 없이 달렸던 것 같다. 당시 젊음과 자신감에 충만했던 나는 남들 다 하는 실패에서 예외일 거라 자만했는데, 동 업자의 배신과 경험 부족으로 추진하던 일들이 꼬이게 됐고, 흑자도산이라는 전혀 위안이 되지 않는 참담한 성적표 를 받아들고 하던 일을 접게 됐다. 어떻게든 재기해 보려고 몸부림치며 뛰어다녀봤지만, 솟아날 구멍이 전혀 없는 무 너진 하늘 밑에 깔려 그때까지 모았던 것과 죽을지도 모른다는 의사 말을 들으면서 건강까지 송두리째 잃고 말았다.

그런 와중 자포자기, 망연자실 주저앉아있던 내게 내미신 주님의 손길은 오래전 연락을 끊었던 중2 때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였다. 1995년 별이 총총한 짙짙한 가을밤 하늘 밑에서 목이 쉬고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절박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며 울부짖었는데 그 결과 주님은 먼저 그때까지 나를 옥죄고 눌러왔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그 리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완벽한 타이밍 과 방법으로 엮히고설켜서 전혀 풀릴 것 같지 않던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해 주셨다!

그 이후, 주님께서 인도해주셔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이제는 예전과 다른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 앞 에서 결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도 못 가서 서서히 그 첫사랑의 감격이 약해져 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 다. 달라지겠노라 결단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없어지고, 은혜로 회복된 몸을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한 일이라 고는 과거처럼 욕심을 쫓는 삶이었다. 겉모습은 신자인 것 같지만 속사람은 다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화석화된 예배를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2014년에 아이가 유학길에 올라 8년 동안 ‘기러기 아빠’로 지내게 되었는데, 2019년 말부터 감정 기복이 심해지면서 불면증과 이석증, 담석증이 겹치고 우울증까지 겪는 등 몸과 마음을 통제하기가 힘든 시기에 부딪히고 말았다. 설상가 상으로 코로나까지 터져 삶 자체가 예측불허의 상황에 빠져들면서 괴로울 때는 거실과 방을 기다시피 오가면서 눈물 로 하나님을 찾는 밤이 이어졌고, 새벽까지 설교를 필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사용해 나를 다루시는 것 같았다. 너무 감사했던 것은 고통 에서 벗어나려고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말씀으로 나의 닫혀있던 생각을 열어젖혀주신 것과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면서 고립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친밀히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온라인을 통해 만난 출 애굽기, 욕기, 시편 설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 뼈와 살에 당신을 새기셨다! 이 시기에 들은 설교 중 하나가 열린교 회 설교였고, 아내가 귀국한 후 1년 정도를 숙고하면서 상의하고 기도하다가 작년 8월에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교회 등록 직후 9월부터 아버지의 낙상사고, 딸기 암 진단부터 소전에 이르기까지 괴롭고 정신없는 상황이 이어졌지 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는데, 특히 아버지가 큰 고통 없이 호스피스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은 것, 아버지의 소전을 앞두고 짧은 기간이나마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등 이제 하나씩 되짚어보니 당 시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모든 것이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 님의 은혜였다.

특별히 올해 사순절 기간에 있었던 특별새벽기도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심 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생각하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응답받게 되었다. 마가복음을 통해 육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절절하게 알게 되었고, 새벽기도, 성경 통독, 성장반, 구역모임을 통해 일주일 내내 하 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고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지금까지 겪은 우여곡절이 내 몸에 새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이다. 아직까지 쓰레기를 보물인 줄 알고 손에서 놓지 않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깨고 일어나 하 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도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임을 되새기면서 세상 끝날 그 너머까지 내 아버지 하나님 과 손잡고 동행하기를 소원한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희 박희준 이동훈
휴직장로	김남근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효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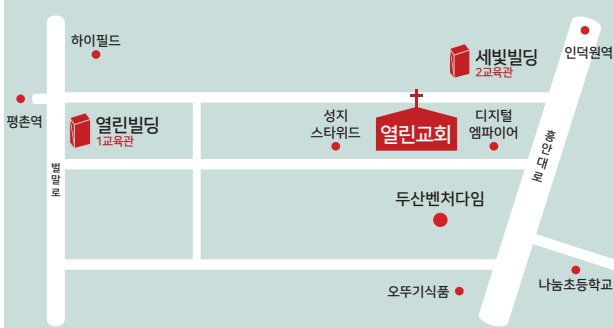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태국: 김요한 & 이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황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섬김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